



외교부

일일 국제에너지·자원 동향

에너지과학외교과(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22.2.15.(화) Vol. 2022-23호

[문의 : 02-2100-8474(8475), gecc@mofa.go.kr]

【석유가스】

- **일본 정부, EU 및 미국측에 對유럽 LNG 유통 협력 방침 전달(주일본대사관)**
 - 일본 경제산업성은 2.9(수) 보도자료를 통해, 하기우다 경산대신이 주일 미국대사 및 주일 EU대표부 대사와 각각 회담을 통해 對유럽 LNG 유통에 가능한 협력할 방침을 전달했다고 발표함.
 - 아사히신문(2.10)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사 등에 잉여분을 유럽으로 판매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 왔으며, 판매처가 결정되지 않은 잉여분은 유럽판매를 우선하도록 함. 수십만 톤이 3월내로 유럽에 도착할 예정이며, 4월 이후도 유통할 수 있도록 각사에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국가 주도로 LNG를 유통하는 것은 이례적
 - 단, 일본의 전력회사나 가스회사 등에 출하가 결정되어있는 분량은 변경하지 않으며, 일본에 대한 안정공급이 확보되는 것을 대전제로 의뢰에 협력할 계획
 - ※ 경산대신은 기자단에게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하며, 추운 겨울이 더 이어져도 이만큼은 관철을 것이라는 계산을 한 후에 잉여분을 협력하겠다’ 고 언급
 - 한편, 동 언론은 중국에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입국으로 국내 발전량의 약 40%를 LNG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또한 여유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對유럽 유통량은 소량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 **아제르바이잔, 터키 및 이탈리아에 가스 공급 확대 전망(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 최근 이란의 천연가스 공급문제로 인해 터키의 가스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에르도간 터키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가스수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1.31)함.
 - 러시아 언론 Interfax에 따르면, 기술적 문제로 터키에 이란산 가스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자, 터키 측은 AGSC(Azerbaijan Gas Supply Company)에 추가 가스 공급을 요청했으며, AGSC는 가스공급량 확대를 통해 터키의 가스수요 충족이 가능하다고 밝힘(1.26)
 - 이탈리아 외교부에 따르면 만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차관은 샤바조프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장관과의 유선 회의를 통해 2021년 TAP 가스관을 통한 가스공급량이 80억 입방미터이며, 가스관은 현재 설계용량의 80%로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체 용량 운영을 위해 가능한 빨리 연간 100억 입방미터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샤바조프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가스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스관 용량을 늘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 /끝/